

우리신문은 지난 11월부터 학내 디자인 문제를 점검해보고 더 나은 디자인 활용을 제안하기 위한 ‘Campus as a Canvas’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학기에는 총 6회의 연재를 통해 학교의 디자인 철학과 상징물, 서식디자인과 영상·웹디자인, 학교 브랜드 마케팅과 기념품 사업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학기 중간호를 맞아, 지난 캠페인 기사에서 다뤘던 분야들에 대해 해당 전문 교수들의 목소리를 모아 그동안의 연재를 정리해보았다. 아울러 다음 학기에 캠페인 지면을 통해 진행될 연재 순서를 대략적으로 제시한다.

- 이번 학기 연재 정리
- 다음 학기 연재 계획

〈이번 학기 연재 순서〉

1. 총론
2. 우리학교의 디자인 철학과 상징물
3. UI - 서식 디자인
4. UI - 영상·웹디자인
5. BI - 학교 브랜드 관리
6. BI - 기념품 및 정리

〈다음 학기〉

환경디자인·행사디자인

BI-기념품
이동민 산업디자인학과장

현재 우리학교의 기념품은 기성품에 로고만 부착된 형태가 주를 이룬다. 고유의 정체성을 담아 타대와 차별화시킨 품목이 없으며 품질도 조악한 것이 많다. 문제는 그간 학교 측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품목과 품질, 디자인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때가 됐다. 독자적 상품 개발을 위한 투자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평생 간직하고픈 상품’이 없는 현실이지 않은가. 덧붙여 개인적으로는 판매를 통한 수익이 학생과 교육환경에 재투자되는 구조를 희망한다.

UI-서식디자인
김은정 교수(디자인학부)

서식디자인은 학내, 구성원과 외부인들이 일차적으로 접하는 ‘경희’의 얼굴이다. 그런 면에서 학교의 이미지 정체성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의 서식디자인에 대해 다양한 이미지 규정을 살펴보고, 제2차 UI 규정을 준비하고 있는 출판문화원의 모습을 다룬 것은 시기적절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개교60주년을 맞아 우리학교의 새로운 UI 규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기획 연재 기사를 통해 제시한 것 역시 유의미했다.

우리학교의 디자인 철학과 상징물
미술대학 박종해 학장

미란 기본적으로 지난 역사 위에 미래를 표방하는 작업이다. 우리학교는 대학이 지녀야 할 ‘미래를 위한 소명의식’을 구현하는데 힘써온 한편, 여타의 사학들과 구별되는 ‘평화’라는 가치관을 중점적으로 추구해왔다.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환경과 생태일 것이다. 이는 인류적 측면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디자인이 유기적으로 담아야 할 중요한 철학이라고 본다.

BI-학교 브랜드 관리
김형석 교수(시각정보디자인학과)

교표와 로고타입에 고유 색상을 적용하고, 이것들을 각종 응용 항목에 활용하는 식의 단순하고 소극적인 개념으로 UI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 UI는 조형적, 형태적 요소로서의 가치보다는 정신적, 내면적 요소로서의 가치가 더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즉 멈춰 있는 UI가 아닌 살아서 꿈틀대는 UI가 돼야 한다. 진정한 토탈 디자인(Total Design) 개념의 우리학교 UI 시스템이 정착되기를 희망하고, 아울러 이를 밑바탕으로 미래 지향적인 우리 학교의 철저한 브랜드 마케팅 전략이 수립되고, 실천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UI-영상·웹디자인
이태훈 교수(디지털콘텐츠학과)

비주얼콘셉트에 대한 아이덴티티와 구성기획에 대한 학교의 전반적 시스템이 상당히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영상·웹디자인에 있어 상당수의 작업이 외주업체에서 제작되고 있어 학내의 재능 있는 인력 활용이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산업의 프로토타입(Proto type)에 해당하는 새로운 모습들을 창출해내는 창의적인 학생들과, 이를 학문적·심미적으로 퀄리티 콘트롤(Quality Control)할 수 있는 교수진이 ‘우리학교’ 디자인에 참여할 기회가 보다 많아졌음 하는 바람이다.

건축물 디자인

학교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역사성 깃든 건축물은 ‘경희’의 상징으로 활용된다. 이 건축물들은 혹시 ‘보기에만 그럴듯한’ 건축물은 아닐까? 충분히 사람을 위한 공간일까? 그리고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은 경희의 상징성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을까? 건축물 디자인을 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을 탐구해본다.

행사디자인

입학·졸업식, 대동제, 입시 등 학교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행사들은 과연 ‘경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학교의 품격과 정체성, 그리고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행사 디자인에 대해 알아본다.

공간디자인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희’를 이야기 해주는가? 휴게공간과 자연공간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학내의 공간을 디자인적 시각으로 파헤쳐본다.

구내 동선 디자인

디자인은 우리 삶을 이롭게 보듬는 도구여야 한다. 학내의 동선은 우리의 안전을 확실히 담보해주는가? 안전에 대한 신뢰는 학교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 그래서 동선 디자인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또 안전한 형태인지 알아보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없다.